

1 본회소식

취임사

애교심과 동문사랑으로 성심껏 일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미술대학 동문 여러분

녹음이 우거진 계절 오월에, 삼가 문안인사 드립니다.

지난 5월13일 미술대학동창회 On-Line 정기총회에서는 회장 및 감사의 선임과, 2021사업계획 확정, 회칙 변경 등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수개월동안 동창회 감사님과 상임부회장님, 그리고 원로 선배님

들께 사의를 표해 왔습니다. 이제 이만큼 미대 동창회가 일하는 조직으로 조직이 구축되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다른 계획이 있어서, 저보다 더 젊고 능력 있는 분이 동창회를 이어받아, 더 혁신적이고 더 역동적으로 이끌어 가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동문 여러분께서 펼쳐놓은 일을 완수하라고 재선임하시니 당혹스럽고 난감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동문 여러분들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향후 2년을 향해 다시 한번 신발 끈을 조이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조언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2년간 동창회는 사업이 크게 늘어나고, 동창회 연계 조직인 사단법인 에스아트플랫폼의 출범으로 사업이 다각화 되었습니다.

저희 동창회 집행부는 주어진 임기 내에 홈페이지 운영, 서울미술나눔자선경매, 동문전, 장학기금마련전, 아카이빙사업, 경조사관리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여명학교 미술교육지원 사업과 벽화제작 등 사회공헌 사업도 지속하겠습니다. 아울러 모교 졸업전에서 동문회상 시

상, 심리상담프로젝트 지원, 학생회 지원, 특지장학금 수여 등 모교지원 사업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임기 내에 동문 이산가족 찾기를 계속하여 디렉토리를 완성하고, 코로나 상황을 살피면서 온라인 전시와 내년에 <서울대미술인>도록 제2집 출간도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미대 동창회 제23대 새 집행부가 구성되었습니다.

총회에서 이종복 현 감사님과 김종선 신임 감사님이 감사로 선임되었고, 상임부회장으로 황현수 현 상임부회장과, 이민주, 김홍규 신임 상임부회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신임 사무국장으로는 민수정 동문회 부회장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동안 헌신적으로 수고하신 김미혜 전 상임부회장과, 이순영 전 사무국장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상임부회장으로 자리를 이동하셨지만, 김홍규 전 감사님도 그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동창회 조직은 애교심과 동문 사랑으로 봉사하는 조직입니다. 저희는 성심을 다 하지만, 때로는 부족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점은 동문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온가족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권영걸 배

동창회장 권영걸('69응미)
상임부회장 황현수('74조소), 이민주('76회화), 김홍규('83응미)
사무국장 민수정('82회화)
사무차장 신지영

감사 이종복('62응미), 김종선('74회화)

정기총회 개최

본회(회장 권영걸)는 지난 5월13일 202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카카오톡 오픈채팅)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총회에서는 전년도 회비납부회원(600여명)을 대상으로 2019/2020년도 사업회계 및 감사보고, 회칙개정, 임원개선, 2021년도 사업계획안 심의가 이뤄졌다. 이날 제23대 임원개선에서 회장에는 권영걸(69응미) 현 회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됐으며 감사에는 이종복(62응미), 김종선(74회화) 회원이 선출됐다. 지난 2019년부터 회장직을 맡아온 권영걸 회장은 이번 연임으로 본회를 2년간 더 이끌게 됐다.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을 감안해 고심 끝에 본회 발전을 위해 연임을 수락한 권회장은 이날 "순종하는 마음으로 향후 2년을 향해 다시 한번 신발 끈을 조이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조언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며 "저에게 깊은 신뢰를 보내주신 동문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권회장은 지난 임기동안 서울미술나눔 자선경매, 서울미술나눔 자선전시, 약 800명의 동문 아카이브 작품집 발간 및 온라인동문전 개최, 동문네트워크 구축, 모교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온 바

있다. 한편 감사에 선출된 이종복 감사는 "너무 오래 동창회 돌아가는 사정을 보아 와서 젊은 후배들에게 물려줄 때도 되었다고 사양했지만 동문들의 뜻에 따라 다시 감사가 됐다"고 말했고, 김종선 감사 역시 "23대 회장단의 일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권회장은 모교 졸업 후 캘리포니아대 건축·디자인대학 석사와 고려대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모교 교수 및 학장과 서울시 부시장·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한샘 사장, 계원예술대 총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예고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감사는 모교졸업 후 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Arts Décoratifs 실내건축학과를 수석졸업하고 중앙청국립박물관, 88서울올림픽 OLIMPHIREX'88 종합전시관,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환경 및 실내디자인 인천국제공항 VIP LOUNGE 등을 디자인했다. 포름디자인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98년에는 BEST DESIGN AWARD OF KOSID 기업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감사는 모교 졸업 후 중앙대 예술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6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전국대학미전 문교부장관상, 국전(29/30회) 특선, 제2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상 등을 수상했다. 중앙대, 전남대, 수원대, 서울과학기술대 외래교수와 본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모교소식

서양화와 특별강연시리즈



모교 서양화과에서 현대미술에 관한 특별강연 시리즈를 진행 중이다. 그 두 번째로 지난 4월24일 '홍지석 강사의 "혁명적 낭만성과 고상한 리얼리즘: 북한미술의 탄생"' Zoom 화상특강이 진행됐다. 홍지석 강사는 홍익대학교 예술학과에서 학사, 석사, 그리고 박사를 마치고 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연구교수,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학술이사, 기획이사를 역임했다. 저서로 '답사의 맛'(2017), '북으로 간 미술가와 미술비평가들-월북미술인 연구'(2018), '한(조선)반도 개념의 분단사 1'(공저, 2018), 그리고 다수의 학술논문이 있다. 또한 2014 정현웅연구기금, 2020 김복진상을 수상한 바 있다. 다가오는 5월 29 일에는 '윤혜원 강사의 "망명의 미학: 1930-40년대 유럽 여성 사진작가들과 아방가르드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화상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혜원 강



사는 모교 고고미술사학과에서 학사, 하버드대학교 미술사학과에서 석사와 박사를 마치고 현재 뉴햄프셔대학교 미술사학과 강사 및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레너드 로더 연구소(Leonard Lauder Research Center)펠로우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박사논문 "Exile at Work: The Portrait Photography of Gisèle Freund, Lisette Model, and Lotte Jacobi, 1930-1955"의 출간을 진행이며, 이 책은 20세기 중반 파시즘의 발흥으로 망명에 오른 세 명의 유대인 여성 사진가들이 초상사진으로 전환하는 방식과 의미를 다룬다.

일시 : 2021년 5월 29일 (토) 11:00-12:30

장소 : Zoom 화상 회의

참가ID : 849-9391-1017

링크 : <https://snu-ac-kr.zoom.us/j/84993911017>

조소과 해외작가 초청 특강



모교 조소과에서 지난 5월11일 데이비드 브룩스 NYU Gallatin 교수의 Zoom 화상특강을 진행했다. 데이비드 브룩스는 미국 국적의 1975년생 작가로 개인과 구축된 자연 환경 사이의 관계를 탐색한다. 그의 작품은 문화적 관심사가 어떻게 자연 세계와 분리될 수 없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인간이 자연을 인식하고 이용하는 저변의 용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Aldrich Contemporary Art Museum, CT; the Dallas Contemporary; Tag Museum, NY; Nouveau Musee Natinal de Monaco; Sculpture Center, NYC; The Visual Art Center, Austin; Nevada Museum of Art; 그리고 MoMA/PS1 외 다수의 미술관에서 전시하였으며 현재는 뉴욕과 뉴올리언스에서 지내며 작업을 하고 있다.

2023학년도 입학전형 개편

모교 입학전형이 개편된다. 수시에서만 선발하던 서양화과 조소과를 포함해 동양화과, 서양화과, 조소과, 공예과를 모두 정시로 옮겨 정시모집만 실시한다. 디자인과는 수시모집에서 7명(비실기)을 선발하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4개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7등급 이내이다. 디자인과는 정시모집에서 수학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운영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최유림입니다. 2021학년도 미술대학 학생회장이 부재한 관계로, 3명의 미술대학 운영위원회 의원이 의장직을 약 3달 간, 차례로 맡게 되었습니다. 미술대학 운영위원회는 미술대학 내 5개 과의 각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회장이 부재할 경우 의장과 부의장이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권한을 상당부분 대행합니다. 지난 2020년 11월의 학생회장 선거에 이어 2021년 4월의 학생회장 선거 또한 후보 미등록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운영위원회 내부에서는 다음 학생회장 선거인 올해 11월까지의 미술대학 학생회 운영을 위하여 회의와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관례적으로는 한 명의 운영위원회 의원이 다음 미술대학 학생회장 선거 이전까지 의장직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지난 겨울방학부터 4월 학생회장 선거 시기까지의 경험을 통해, 운영위원회는 의장직의 무게를 의원 한 명에게 지우기보다는 다수가 분담하는 구조에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그리하여 4월부터 6월까지의 임기 동안 의장직을 맡게 되어 이렇게 동창회에 인사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미술대학 학생들이 실기실을 원활히 사용하지 못하여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다가오는 2학기부터는 학교 차원에서 대면 수업 시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미술대학 학생들 또한 하루빨리 교내에서 원활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임기 내의 일은 아니지만, 동창회에서 2021년도 미술대학 신규 입학생을 위한 안내 책자 제작을 위한 도움을 주셨던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따뜻한 도움 덕분에 제작비에 대한 걱정을 덜고, 더 나은 책자 제작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제작된 책자는 21학번 미술대학 신입생에게 전권 배포되어, 미술대학 신입생으로의 출발에 길라잡이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날씨가 부쩍 더워지고 있는 5월입니다. 무탈하고 행복한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 5

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운영위원회 의장 최유림(19시디)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하반기 의장을 맡게 된 최유정입니다. 올해는 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각 과의 회장들이 다함께 공동체의 의무를 나눠지고, 기간을 나누어 의장직을 맡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내부 회의를 통해 제가 하반기 의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에 비단 학생회뿐 아니라 학교구성원 모두가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실기실 이용시간 추가 요청, 등록금 일부 반환과 재료비 지원 등 학생들의 요구 사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7~9월)는

한 학기를 끝내고 시작하는 시기이기에 더욱이 학생회로서의 역할에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회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학생들의 의견에 더욱 귀기울이고 그들의 고충을 덜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미술대학 학생회장 선거는 10월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항상 저희 학생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동문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리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021. 5

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운영위원회 의장 최유정(20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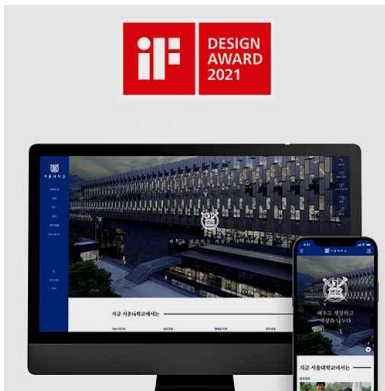
서울대소식

코로나19 신속분자진단검사 실시



서울대는 '코로나19 선제검사'로 알려진 코로나19 신속 분자진단 검사를 지난 4월26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자연과학계열 소속 2700여명 가운데 희망하는 이들이 검사 대상이다. 검사소에는 체온 측정과 문진표 작성을 위한 부스, 검체 채취소 3곳, RNA모듈, PCR 모듈 컨테이너, 양성 판정이 나온 검사자들을 위한 격리 부스 등이 설치되어 있다. 지난 4월 22일, 23일 이틀간 시운영 기간엔 60여명, 26일인 시행 첫날엔 180여명이 검사를 받았다. 서울대 관계자는 "사전에 본인이 동의했을 경우엔 양성 결과를 받으면 검사업체에서 곧바로 관악구보건소에 통보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 서울대는 이번 검사가 법령에 근거한 병원체 확인이 아니고 감염 의심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오는 6월14일까지 매주 평일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면서도 검사 대상 등을 차츰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대 측은 이번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학기엔 예체능, 공과대 등 학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홈페이지 'iF디자인어워드'수상



서울대 홈페이지가 'iF디자인어워드 2021'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독일 'iF디자인어워드'는 미국 'IDEA디자인 어워드' 및 독일 '레드닷디자인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디자인계의 오스카상'으로, 국내 대학 홈페이지가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대 홈페이지는 서울대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메인 영상과 편의성을 높인 일관된 레이아웃, 새로운 사용자 경험의 트렌드를 제시한 좌측 내비게이션 바 등이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대는 "서울대 본연의 역할인 교육과 연구, 나눔이라는 콘텐츠를 사용자가 편리하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더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iF 디자인 어워드'는 20개국 98명의 전문 평가위원단이 제품, 패키지, 커뮤니케이션, 콘셉트, 인테리어, 건축, 서비스 디자인, 사용자 경험(UX),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등 총 9개 부문에서 디자인 차별성과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올해는 52개국 약 1만여개가 경합을 벌였다.

폐수영장철거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 맞은편에 위치한 수영장이 관리 및 안전상의 이유로 4월1일-5월31일 철거공사를 거쳐 자연상태로 복구된다. 1975년 서울대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하기 전부터 있었던 폐수영장은 1980년대까지 이용되다 90년대 초 돌연 폐쇄돼 방치돼왔다. 2010년대에 이르러 예술가들이 드나들며 폐수영장은 예술공간으로 주목받아 여러 독립영화들과 아이돌 그룹 '에프엑스'의 촬영지가 되기도 했다.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래피티와 작업물들로 새로운 문화적 공간으로 변화한 폐수영장은 이색 촬영장소가 됐다. 이에 폐수영장 철거 결정에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언론정보학과 홍석경 교수는 "그래피티는 중요한 도시 문화며, 폐수영장은 서울에서 대대적으로 그래피티가 보이는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라며 폐수영장의 문화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열린 문화공간으로 개발해 역사와 문화적 흔적들을 살리는 것이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학생설계전공 복수전공 이수가능

내년 봄부터 학생설계전공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복수전공 수준의 학위를 취득하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학생설계전공은 학생이 직접 새로운 전공을 설계하고 이수하는 제도로, 기존의 주전공/부전공이나 연합전공과는 차별화된 전공 이수제도이다. 현재 인권학, 행복학, 범죄학, 운동과학 등의 창의적인 학생설계전공이 개설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학생설계전공 제도는 자유전공학부(이하 자전) 소속 외 학생들의 학위가 부전공 수준으로만 인정되었고, 학생설계전공을 선이수 중인 학생들의 사례가 잘 알려지지 않아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사과는 학생설계전공 개선안을 마련해 2022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온라인으로 기존 학생설계전공 커리큘럼을 살필 수 있도록 학업관리 사이트인 '스누지니'도 개편될 예정이다. 2022년 3월부터 개편안이 적용됨에 따라, 학생설계전공을 이수 중인 모든 학생이 복수전공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학생설계전공 운영방식도 변화했다. 학생설계전공을 설계할 때에 구성하는 교과과정 편성 학점은 33학점 이상에서 51학점 이상으로 변경됐으며, 학생설계전공 이수학점도 21학점 이상에서 39학점 이상으로 변경됐다. 학생설계전공 이수자들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학교 측은 기존 학생설계전공 데이터를 '스누지니' 사이트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게시하고, 학생설계전공 전담 운영기관도 신설할 예정이다.

잔디광장이 변한다



관악캠퍼스의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개선하고 보행자 중심의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대학본부(행정관) 앞 잔디광장에 지하 2층 규모의 주차장과 새로운 잔디광장이 조성된다. 4월19일 시작돼 2022년 8월 경 완공 예정이다. 공사 이후에는 차량과 보행자 동선이 구분돼 구성원이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되며, 전기차 충전소 20여대와 장애인 주차구역 10여대를 포함 400여대의 주차공간이 생겨 관악캠퍼스의 주차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잔디광장 주변에 공사 펜스가 설치되면서 서울대 학외 셔틀버스 및 통근버스, 일반버스정류장이 임시로 주변에 옮겨질 예정이다. 잔디광장 근처 주차 공간에도 변화가 생긴다. 행정관 앞, 문화관-잔디광장 사이 노상주차장, 택시정류장 앞 노상주차장에는 주차가 제한된다. 서울대를 방문하는 내외빈의 차량에 대해서는 정보화본부 측면에 전용 주차장이 마련된다. 공사 후에는 잔디광장 지하에는 417면 규모의 지하주차장이 생겨 여유로운 주차공간 이용이 가능하며, 문화광장의 역할을 할 잔디광장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대총동창회소식

2021년도 정기총회 및 관악대상 시상식

서울대학교총동창회(회장 이희범)는 2021년도 정기총회 및 제23회 관악대상 시상식을 2021년 6월11일(금) 오후5시에 서울 삼성동 소재 코엑스3층 오디토리움에서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정기총회, 관악대상 시상 및 유공동문 표창 등 순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남가주 총동창회서울대미대 동문전

코로나19 확산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한인사회 동문회 등 단체들의 오프라인 모임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최용준)가 연초에 미뤄졌던 2021년 정기총회 및 만찬행사를 5월22일 LA 한인타운 인근 S-빌리지의 야외 행사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오후 3시부터 등록과 행사 장소에 있는 S-갤러리(대표한귀희)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대미대 동문전 관람에 이어 가든파티, 만찬, 특별 공연, 푸짐한 경품 추첨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6월 조찬포럼

일시 : 6월 10일(목) 오전 7시 30분
장소 : 더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시청 앞)
강연자 및 주제 : 김인규 경기대 총장 'BTS와 미나리'
참가비 : 5만원 / 1년간 50만원(조찬 및 도서 제공)

6월 동문골프대회

일시 : 6월 20일(일) 낮 12시경
장소 : 코리아CC(경기 용인시)
진행방법 : 가. 친선팀 : 개인별 출전
나. 대표팀 : 단체-4인1팀구성, 단과대학 및 지부별 2팀이상 출전 가능
 개인-개인별 출전(단체전 출전선수는 개인전도 참가 신청됨)
참석인원 : 25팀 100명
참가비 : 30만원(그린피·카트료·오찬·만찬·그늘집 포함, 캐디피는 팀별부담)

6월 수요특강

서울대학교미술관 소식

이건희 컬렉션

이건희(1942~2020) 삼성 회장의 작고 후 수집품 2만3천여 점이 사회 전체에 기증됐다. ‘이건희 컬렉션’ 중 이종상(59회화), 안영일(54회화), 김병중(74회화) 동문의 작품들이 서울대미술관에 기증됐다. 서울대미술관 측 관계자는 “기증작품들은 작가의 구작이라 구하기 어려운 까닭에 전시 뿐만 아니라 연구자료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종상 동문은 1977년 5천원권의 율곡 이이, 2009년에 5만원권의 신사임당 영정을 그린 유일한 생존 화폐영정 화가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과 인연을 맺어 이건희 회장과도 닮았다. 옛 삼성본관 로비에 걸렸던 폭 52m의 대형 벽화가 바로 그의 작품이다. 기증된 ‘부산항 풍경’(1975)은 이동문의 청년기 희소작이다.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타계한 화가 안영일 동문은 1966년 이후 미국에서 활동하며 1983년 이후로 단색조의 추상화로 물의 수면을 그려왔다. 이번에 기증된 작품은 잘 알려진 ‘물’이 완성되기 이전인 1970년대 ‘작품’ 2점이라 작가의 화풍 연구에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중 동문은 홍라희(63응미/전 리움미술관장) 동문이 주도적 역할을 해 삼성그룹(회장 이건희)이 건립, 기증한 서울대미술관이 개관하던 2005년 당시 미술관장이었다. 삼성 측은 김동문의 대표작인 ‘생명의 노래’를 비롯한 19점을 서울대에 기증했다.

조지워싱턴대 자랑스러운동문상 수상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이희범(67전자공학) 회장이 엘리자베스 워렌 미 상원의원, 마크 워너 미 상원 민주당 부의장, 콜린 파월 전 미 국무장관과 함께 조지워싱턴대 ‘자랑스러운 동문상(GW Monumental Alumni Award)’ 수상자에 선정됐다. 조지워싱턴대학이 개교 200주년을 맞아 올해 처음 제정한 이 상은 해당 대학이 탁월한 업적을 쌓은 동문을 기념하는 최고 영예의 상으로, 수상자는 조지워싱턴대 200주년기념 특별간행물에 게재되며, 수상자들의 업적은 비디오로 제작되어 영구보관된다. 학교 측은 코로나사태가 진정되면 워싱턴에서 별도의 수상자 모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회장은 1987년 조지워싱턴대 경영대학원을 최우수(summa cum laude) 성적으로 졸업했으며 산업자원부장관, 한국무역협회장, 2018 평창동계올림픽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조지워싱턴대를 나온 한국인은 이승만 전 대통령, 이건희 전 삼성회장, 장대환 매일경제회장,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등이 있다.

일시 : 6월 23일(수) 오전 7시 30분
장소 : SNU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공덕역 8번출구)
강연자 및 주제 : 엄홍길 산악인 ‘불멸의 도전’
참가비 : 무료(김밥 등 간단한 식사 및 도서 제공)

7월 동문등산대회

일시 : 7월 3일(토) 오전 10시
장소 : 청계산
참가비 : 2만원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선착순 마감까지(문의 : 02-702-2233)
- ☐ 참가신청 [성함, 단과대학(과정명), 휴대전화번호 기재]
- 문자 1877-2039(전화수신불가), 팩스 02-703-0755
이메일 member@snu.ac.kr로 접수
- ☐ 참가비 : 신한은행 140-013-055887(서울대총동창회)
입금시 성함과 입학연도 표기



잃어버린 시간의 연대기

- 한국현대미술에 대한 성찰적 읽기의 일환으로 기획된 전시
- ▶전시기간 : 2021년 4월 15일(목) - 6월 20일(일)
 - ▶관람시간 : 오전10시-오후6시(입장마감 오후5시30분/02-880-9504)
 - ▶전시장소 : 서울대학교미술관 전시실1-4, 코어갤러리
 - ▶전시부문 : 회화, 조각, 사진, 영상 등 약 70점
 - ▶참여작가 : 고낙범, 권오상, 김기라, 김홍석, 데비한, 박이소, 배찬효, 신미경, 위영일, 이동기, 이병호, 이완, 이용백, 주재환, 홍경택

공지사항

정성껏 내주신 회비와 찬조금은 동창회와 동문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연회비	회원	3만원(평생회비30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찬조금		상시 환영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회비납부시 성명 · 학번 · 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비납부자(2021.3.1.-3.31)-가나다순

<찬조금>

- 찬 조 금 ●성기점(58회화) 2,000,000원
- 평생회비 ●양승희(73회화) ●이진민(83서양)
- 연 회 비
- 부회장 ●김지명(69회화) ●김창수(82응미) ●박향률(70회화)
- 이 사 ●배창숙(74응미) ●신현경(74회화) ●최명애(70회화))
- 회 원 ●강인선(73회화) ●김대혁(78응미) ●정상근(79응미)
- 손은신(82응미) ●송아리(05조소) ●송윤주(94동양)
- 유종민(60조소) ●이승령(67조소) ●장지원(72응미)

성기점 고문 200만원 찬조
성기점 동문께서 동문들을 위해 찬조금 2,000,000원을 쾌척하셨습니다. 본 회 고문이신 성동문은 지난 2020년 동문작품집인 서울대미술인 발간 당시 직접 58학번 동기분들의 자료 수집 및 제출에 발 벗고 나서 큰 도움을 주는 등 그동안 본회 사업에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변경안내

본회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이 바뀌었습니다.
@snuartassociation → @snuartalumni
기존계정은 개인계정으로 바뀌었으니 동문들께서는 새로운 공식계정인 @snuartalumni를 팔로우 해주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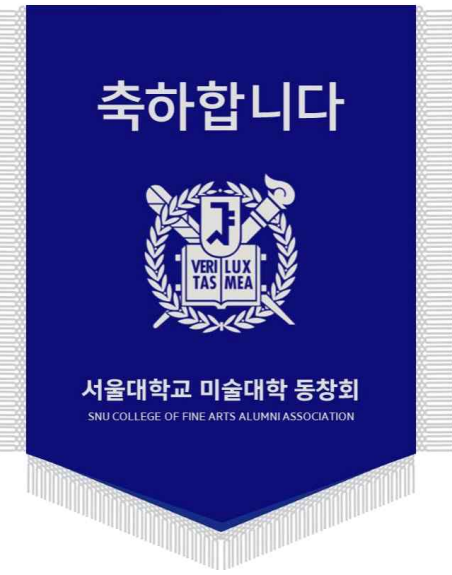
소식지를 휴대폰으로

본회는 매월 온라인소식지 E-NEWS를 발간해 메일로 발송합니다. 휴대폰에 메일 어플리케이션(네이버메일, 다음메일 등)을 설치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식지를 통해 전시, 행사나 경조사 등을 알리고 싶으신 동문께서는 매달 25일 이전 동창회메일(snuarta@naver.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동문사업체 소개

본회는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하여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동문께서는 동창회메일(snuarta@naver.com)로 성명(학번·학과), 사업체 명칭과 소개의 글, 이미지,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근조기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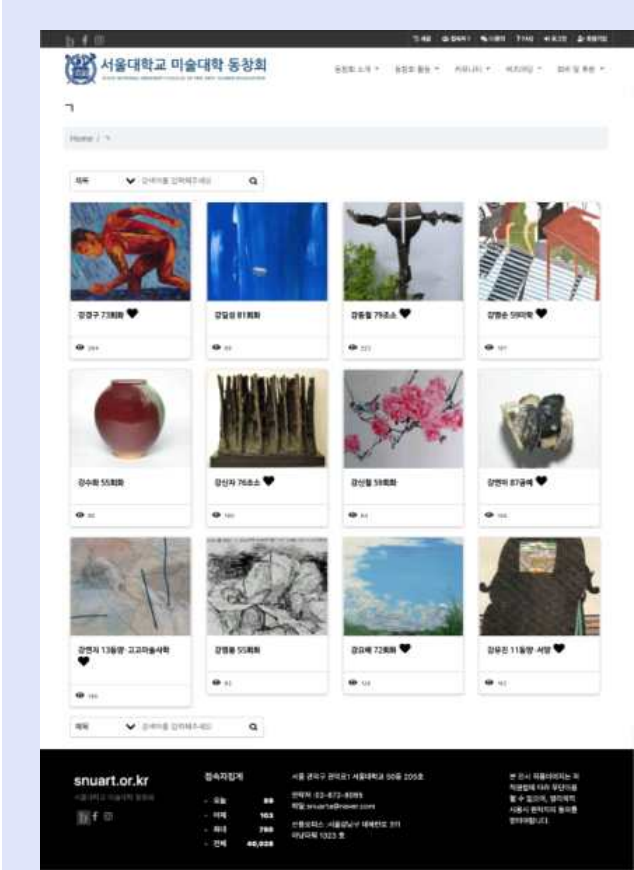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 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872-8065)

동창회 SNS 가입안내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 밴드 . 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하시면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밴드 가입시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올려 동문들에게 알리실 수도 있습니다. 가입시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D예 : 김홍도(98동양)

동문아카이브 게재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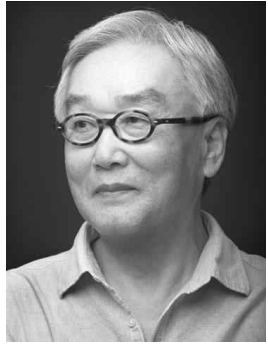


회비를 납부하신 회원님들의 약력과 창작물 이미지를 본회 홈페이지 아카이브에 게재해드립니다. 본회 메일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확인 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업로드 되어있는 회원님들은 수정·보완해드립니다.
본회는 지난해 온라인동문전 'ART ON THE LINE' 개최와 동문작품집 '서울대미술인' 발간에 이어 본회 홈페이지(snuarta.or.kr/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에 동문작품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온라인동문전 종료 후 홈페이지로 전환해 공개한 아카이브에는 온라인전 참가회원 외에 작고회원을 보완해 현재 약 600명의 작품 및 약력이 게재 되어 있으며 방문횟수 1일 최대 780회, 1일 평균 100여회를 기록, 지금까지 총 4만여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회는 게재대상을 기존의 시각예술작품 외에 영화, 공연, 저서 등 창작물은 물론, 운영사업체나 프로젝트까지 확대해 전 동문들을 아우르는 아카이브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회 메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면 창작물은 홈페이지 아카이브에, 사업관련은 홈페이지 비즈코너에 게재해드리고 있습니다.

게재신청

메일주소 : snuarta@naver.com
제출자료 : 이름(학번/과), 약력, 창작물 또는 사업관련 이미지(3장)와 캡션
게재대상 : 금년 회비납부회원(회비납부안내는 본 페이지 상단 공지사항 참조)
문의 : 02-872-5065

유작과 소장품 사회에 환원 서세옥(46회화)



지난해 11월29일 타계한 수묵추상화 선구자 산정(山丁) 서세옥(1929~2020) 동문은 생전에 따뜻한 시각으로 사람 형상을 즐겨 그리고 나눔과 실천에 앞장섰다. 고인의 유족들도 그가 남긴 유작과 수집 미술품 등 총 3402점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유족들은 고인의 작품과 소장품 3290점을 서울 성북구에, 유작 90점을 대구미술관에, 유작 22점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한다. 성북구는 고인이 60여 년간 거주하면서 애착을 가진 곳이며, 대구는 고인의 고향이다. 이번 기증작에는 서동문이 평생 수집한 정선, 김정희, 변관식, 손재형, 김용준 등 한국 미술의 맥을 잇는 작품 990여 점도 포함되어 있다. 성북구는 "고인의 작품 가격이 크기에 따라 1천만~2억원인

것을 감안하고 명품 소장품이 많아서 전체 기증품 시가는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성북구립미술관은 이번에 기증되는 모든 작품을 소장해 관리하며 오는 10월 고인의 1주기 추모전에서 '서세옥 컬렉션'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서동문은 1929년 항일지사이자 한학자 서장환(1890~1970)의 아들로 태어나 1946년 모교 제1회 학생으로 입학하여 동양화과를 졸업했다. 해방 후 동양화 1세대였던 그는 서예 기법을 회화에 접목한 작업으로 평생 화단 변혁의 선두에 서 왔다. 과거 문인화를 답습하는 대신 간결한 선묘, 담채에 의한 담백한 공간 처리 등 파격적 수묵추상으로 독창적 화풍을 개척했다. 1959년 묵림회(墨林會)를 발족해 현대적 한국화의 바람을 이끌었으며, 26세에 모교 교수가 된 뒤 40년간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그는 2014년 자신의 시대별 대표작 등을 추려 100점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했으며, 1993년 국민훈장석류장, 2012년 은관문화훈장, 2021년 금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다.

1세대 그래픽디자이너 봉상균(55응미)



4년 전 86세를 일기로 타계한 봉상균 동문, 지금은 세계적 영화감독 봉준호의 부친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 디자인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개척자이며, 그 공로로 '디자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기념비적 프론티어로 기억되는 인물이다. 봉동문은 오늘의 '산업디자인진흥원' 전신인 '디자인포장센터'와 대학을 오가며 한국 디자인이 '산학협력'의 시스템 위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과 정책을 실무적으로 완성시켜나간 주역이다. 그가 디자인 정책과 전략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융합'과 '혼합'이다. 오늘날 전가의 보도처럼 운위되는 개념이지만, 과거에는 하나의 전문 분야에서도 뭔가 신속히 채워야 하는 조급증이 강해 한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그는 일찍부터 융·복합 디자인을 강조했다.

수십 년이 지나서야 우리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화려한 등장으로 융·복합의 패러다임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지만, 이미 봉상균 디자인 전략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개념이니 그가 얼마나 선견지명이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봉동문은 일찍부터 디자인과 파인아트의 융합, 영화 및 미디어의 응용, 산업과 교육의 교환,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의 융합, 자연과 예술의 조화, 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 이러한 다양한 실무경험과 이론적 바탕을 여러 권의 저서로 집대성함으로써 이론적으로나 현장 실무면에서나 우리 디자인의 굳건한 지주 역할을 한 바 있다. 그는 회화, 일러스트레이션, 공공미술 벽화, 제품디자인, 광고디자인, 영화 등에 걸쳐 자유롭게 오간 경험에 기초하여 교육 현장에서도 다양한 장르의 크로스오버를 적극 권장하였다. 수많은 제자들이 고인을 회고할 때 빼놓지 않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한 자유로운 개성을 존중하는 철학은 자녀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들 봉준호는 2018년 제작된 기념화집에 실린 글에서 "아버지는 저에게 아름다움에 대한 '덕후'였다."라고 회고하기도 했다.

이중섭미술상 수상 곽훈(59회화)



제33회 '이중섭미술상' 수상자로 곽훈 동문이 선정됐다. 이중섭미술상 심사위원회는 해외무대에서 주로 활동하면서도 한국전쟁 등의 기억을 바탕으로 한국의 미적 감성을 지속적으로 시각화한 그의 창작세계를 높이 평가했다. 곽동문은 40여년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회화·조각·설치 등 다방면에서 국제적 성취를 이뤘다. 친척 상당수가 좌익 운동에 연루된 탓에 지속적인 관찰 대상이었던 곽동문은 1975년 미국으로 건너갔다. 클리블랜드 광고회사에서 일러스트를 그리다 5년 뒤 캘리포니아로 가 대학

에서 미술을 공부하며 재기했다. LA카운티미술관·뉴욕 찰스콜스갤러리 등 미국 뿐 아니라 중국·스페인·영국·호주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그의 몸은 바다 건너 있었으나, 정신은 여전히 고향에 있었다. 미국에서 처음 그린 그림도 '찰잔' 연작으로, 고등학교 시절 대구 앞산에서 땅 파면 많이 나오던 가야토기가 떠올라 그린 작품이었다. 또, 어릴 적 경험한 한국전쟁 등의 참상 탓에 그의 그림은 한국적 한의 개념으로도 곧잘 해석되곤 한다. 이를테면 'X'자 선으로 가득한 그림 '주문' 연작은 과거 가마니에 쓴 시체를 추상화한 것이다. 1995년 베네치아비엔날레 한국관 개관전에 첫 대표작가로 선발되어, 향아리가 악기(플루트)처럼 걸린 소나무 대를 세우고, 그 옆에 비구니 15명이 앉아 하늘과 땅의 공명을 은유하는 그의 퍼포먼스는 단연 화제였다. 곽동문은 "칼국숫집은 수십 년 같은 칼국수를 내와도 되지만 화가는 그래선 안 된다."고 말하며 4년 전부터는 원시적 고래사냥의 순간을 그린 샤머니즘적 회화 연작 'Halaayt'에 몰두하고 있다.

자연을 조각하다 심문섭(61조소)



심문섭 동문은 어린 시절부터 자연과 더불어 자랐고, 자연과 아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그는 중학생 때 동양화가 이석우(1928~1987)와 서양화가 김종근(1933~2012)의 가르침을 받았다. 특히 김종근은 비범한 재능의 제자를 아꼈고, 심동문이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어졌다. 모교에 진학한 심동문은 청년작가 시절부터 실험적인 작업을 했다. 철, 아크릴 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재료

적 실험을 했다. 1970년 한국의 대표적인 전위적 미술 그룹인 AG(아방가르드 협회)에 참여하는 등 일찍부터 두각을 드러냈다. 1971년, 1973년, 1975년 파리청년비엔날레에 선발되면서부터 국제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981년에는 일본 하코네의 헨리무어대상전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이 상은 그의 국제적인 인지도를 크게 높여 주었고, 1997년 헤수스 라파엘 소토, 앤서니 고티, 장 피에르 레이노 등 세계적인 작가들이 참가한 통영 국제조각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통영의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남망산에 이들의 작품을 영구전시하는 통영국제조각공원을 조성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조각가들의 작품을 집으로 재탄생시킨 통영 조각의 집을 조성하기도 했다.

영국 잡지사 CI 디자인 황부용(69응미)



황부용 동문이 영국 런던 소재 온라인 잡지사 '컨템포러리 아트 큐레이터'(CONTEMPORARY ART CURATOR)의 CI 디자인을 재능기부 했다. '컨템포러리 아트 큐레이터'는 2014년에 설립된 회사로 월간 홈페이지 접속자 숫자는 80만명에 달하고, 인스타그램 42만5000명, 페이스북 2만3000명 정도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100 ARTISTS OF THE FUTURE' 'COLLECTOR BOOK: NEW PERSPECTIVES' 2권의 단행본을 출판한 실적이 있다. 작년 10월 '컨템포러리 아트 큐레이터'가 먼저 황동문에게 세 번째 단행본 출판 참여를 요청하면서 함께한 인연이 계기가 되었다.

었다. 평소 '컨템포러리 아트 큐레이터'가 SNS에 새로운 작품을 소개할 때마다 회사 이름이 너무 길고 복잡하다고 생각했던 황동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축약형 마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새로운 디자인을 제안했다. 이를 '컨템포러리 아트 큐레이터'가 받아들여 사용하게 된 것이다. 한편 황동문은 2009년 그래픽디자인계에서의 33년 활동을 마감하고 전업화가 생활 시작해 해마다 개인전과 그룹전을 꾸준히 하고 있다. 모교에서 응용미술과 상업미술을 전공했으며 동대학원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편집국 신문디자인 전문위원,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디자인실장을 역임했고, 명지전문대학 전임강사 및 조교수를 지냈다. 1987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IAA 주최 국제포스터살롱에서 2등상 수상, 1979년 중앙일보사 발행 계간 미술 12호에 대한민국 10대 그래픽 디자이너로 선정되었다.

한국여류수채화가협회 회장선임 박혜령(74회화)



박혜령 동문이 한국여류수채화가협회 회장에 선임됐다. 박동문은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한국여류수채화가협회 부회장,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수채화분과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여성동문작가모임인 한울회 사무국장을 맡고있다. 한편 수채화를 사랑하는 여성수채화작가들의 모임인 한국여류수채화가협회는 1989년 롯데미술관 본점에서 첫 정

기전을 가진 이후 2020년까지 32회의 정기전을 서울갤러리, 경인미술관, 덕원미술관 등에서 개최하며 많은 여성수채화가들을 배출해 왔다. 그 이외에 다수의 지방 초대전과 특별초대전을 개최한 바 있으며, 오는 5월 26~31일 인사동 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에서 제33회 정기전을 개최한다. 2021년 코로나 상황으로 전시활동이 많이 위축된 상황임에도 49명의 작가들이 20-50호 크기의 수채화작품들을 선보인다. 동문 중에는 박동문과 정혜주(83서양) 동문이 출품한다.



대구사진비엔날레 예술감독선임 심상용(81회화)



심상용 동문이 대구사진비엔날레를 제8회 대구사진비엔날레 주제전시 예술감독으로 선임했다. 대구문화예술회관(관장 김형국)이 주관하는 제8회 대구사진비엔날레는 오는 9월10일부터 11월2일까지 대구시내 전역에서 열린다. 심동문의 선임 이전 지난 2019년 브리타 슈미츠(독일)가 예술감독으로 선임되었으나, 준비도중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사진비엔날레가 연기됐고, 2021년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할 때 해외감독은 국내활동에 제약이 많다고 판단되어 이번 비엔날레가 끝난 후 다시 임기를 기약하기로 했다. 대구문화회관측은 "지금의 시대상을 반영한 콘셉

트를 잘 구현할 수 있는 국내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비엔날레의 역할과 시대적 방향성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은 심상용이라는 것이 다수의 추천이었다. 심상용은 대한민국에서 열리고 있는 대부분의 비엔날레를 다년간 평가하고 방향성을 제시한 이력이 있으므로 준비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대구사진비엔날레에 꼭 필요한 인물이라는 것이 전문가 그룹인 대구사진비엔날레 소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견이었으며 곧이어 육성위원회의 의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심동문은 모교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한 후 파리 제8대학에서 조형예술학 석사, 파리 1대학에서 미술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동덕여대 큐레이터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모교 교수와 서울대학교 미술관장으로 재직하며 유럽문화예술학회 부회장, 광주비엔날레 운영위원회 자문위원, 부산비엔날레 조직위원회 학술위원 등 미술사학 및 미술비평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통영국제트리엔날레 예술감독선임 김경미(석85서양)



2022 제1회 통영국제트리엔날레 예술감독에 김경미 동문이 선임됐다.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이사장 강석주)은 내년 3월 중순에서 5월 초에 통영시 곳곳에서 제1회 통영국제트리엔날레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통영국제트리엔날레는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글로벌 다원예술제다. 김동문은 뉴욕대학교 Tisch School of the Arts ITP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석사 및 모교 대학원 미술이론 석사 출신으로, 지난

2015 한강가을빛축제 '물의 꿈' 등 국제규모 다원예술 프로젝트를 수년간 기획·감독해왔다. 또한 뉴미디어아트연구회(NMARA)를 2010년부터 이끌어 오고 있다. 이외에도 2012년 미디어시티 서울 아웃도어 스크리닝 총감독, 2014년 아트&사이언스 융합프로젝트 다이나믹 스트럭처&플루이드 프로젝트 디렉터, 2017 아르코국제예술교류 다원예술프로젝트 'Requiem for Hybrid Life', 2019 플랫폼엘 라이브아트 다원예술공연프로젝트 緣, 2020 아르코 아트앤티크 다원예술공연프로젝트 緣을 기획·감독했다. 김동문은 "생태, 인류세, 포스트 휴먼을 키워드로 주전시, 다원예술을 표방하는 국제전 등을 통해 통영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 전세계에 통영을 예술로 다시 태어난 도시로 알리며 융복합예술의 플랫폼으로 부각 시키고자한다"고 말했다.

마을재생프로젝트 김선경(85서양)



김선경(85서양) 동문이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화지리에서 꽃밭(화전)이나 꽃지(화지)라는 이름에 맞춘 마을재생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화지리는 마을활성화를 위해 꽃과 정원을 택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증가한 빈 건물들을 화단이나 정원 등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화지리 주민협의체 대표이자 도시재생센터에서 주민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있는 김동문은 모교를 졸업하고 서른한 살 때 귀향해 고향에 관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는 "서울에 살면서 고향에 관한 그림을 그리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면서 본인의 고향을 표현해서 외부에 알리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지리 곳곳 담장이 김동문의 캔버스이자 갤러리다. 그의 벽화에는 주민들의 삶이 녹아 있다. 또한 화지마을 주민협의체 운영위원회 대표로서 자신의 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사심 없는 목소리를 꾸준히 낼 때 화지마을이 좀 더 온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종근당예술지상 수상 정혜정(정직성·95서양)



종근당홀딩스는 지난 4월23일 서울 충정로 종근당 본사에서 '종근당예술지상 2021 증서 수여식'을 갖고 이재훈, 이해민선, 정직성 등 미술작가 3명을 올해의 작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세 작가는 다양한 기법과 소재로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국내 현대미술의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최종 작가로 선발됐다. 선정된 작가들에게는 1인당 연간 1천

만원의 창작금을 3년간 지원하며, 지원 마지막 해에는 기획전 개최 기회를 제공한다. 정동문은 모교 서양화과와 석사,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난지스튜디오, 장흥아틀리에, 영은아티스트레지던시, 이응노의집 등 스튜디오 입주작가로 활동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오늘의젊은예술가상, 김종영미술관 오늘의작가 등으로 선정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종근당예술지상은 성장 가능성을 지닌 신진작가들의 창작활동과 전시 기회를 지원하자는 이장한 회장의 제안에 따라 마련됐다. 매년 미술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두 차례의 비공개 심사를 통해 만45세 이하의 회화작가 3명을 선정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30명의 작가를 지원해왔다.

올해의작가상 후원작가선정 오민(98산디)·김상진(00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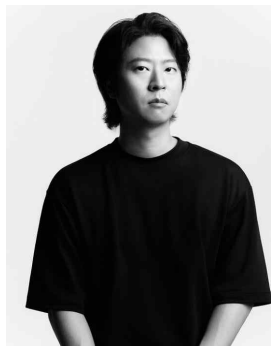


오민 동문과 김상진 동문이 국립현대미술관가 SBS문화재단이 공동주최하는 '올해의 작가상 2021'의 후원작가 4인에 선정됐다. 후원작가들은 작품 제작을 위해 SBS문화재단이 제공하는 4천만원의 창작후원금을 각각 지원받는다. 전시기간 중 진행되는 2차 심사를 통해 발표될 최종 수상 작가는 '2021 올해의 작가'로 공표되고, 상금 1천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선정된 작가들은 국내·외 활발한 활동을 통해 미술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오동문(위사진)은 서울대 음대(피아노 전공)를 졸업후 모교 산업디자인과(시각디자인전공)를 졸업했으며, 예일대에서 그래픽디자인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2017년 'Notations'(뉴욕 두산갤러리), 2018년 'Étude'(아틀리에 에르메스), 2020년 '초청자, 참석자, 부재자'(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



센터)가 있다. 김동문(아래사진)은 모교에서 조소과를 졸업한 뒤 골드스미스 순수미술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2014년 대안공간 루프에서 열린 'Phantom Sign'과 2016년 'Control beyond control', out_sight, 2019년 'Crosscheck', osisun에서 개최된 'Crosscheck' 있다. 올해 10회째를 맞은 '올해의 작가상 2021'은 국내·외 미술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통해 후원작가 4인을 선정했다. 심사위원단은 변화하는 예술환경 속에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 한국미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해외 심사위원을 포함하며 매해 새롭게 구성된다. '올해의 작가상 2021' 후원작가로 선정된 4인은 조각, 설치, 사진, 영상 분야에 서 각기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심사위원단은 전시 개최 후 최종 수상작가 1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오는 10월20일부터 2022년 1월30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진행되며 작가들이 새롭게 구상, 제안한 신작을 선보인다. 최종 수상 작가는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의 작가상은 한국현대미술의 가능성과 비전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작가들을 지원, 육성, 후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과 SBS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 및 진행해오고 있다.

글래스애니메이션영화제 수상 오수형(02서양)



감독 오수형(에릭오) 동문의 단편 만화영화 신작 '오페라(OPERA)'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글래스 애니메이션 영화제(GLAS Animation Festival) 경쟁부문에서 수상했다. '오페라'는 벽면이나 구조물에 투사되는 설치 미디어 아트 전시를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로 인류 역사의 계층, 문화, 종교, 이념 간의 갈등을 포괄적으로 다뤘다. 올해 유일한 한국 제작 작품으로 오스카 후보에 올랐던 오동문의 단편 애니메이션 신작 '오페라 (OPERA)'는 아깝게 수상에 실패 했다.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 단편 애니메이션 부문은 넷플릭스 제작의 'If Anything Happens I Love You'가 수상했다. 마지막까

지 현지 매체들 사이에서 해당 부문의 수상작 예상이 엇갈리며 막판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아카데미는 미국 사회 전체에 크나큰 충격을 안겼던 학내 총기난사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 'If Anything Happens I Love You'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에릭오 감독의 '오페라'는 한국 애니메이션으로는 최초로 아카데미 후보 경쟁을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오페라'는 지난해 세계 4대 애니메이션 영화제를 비롯한 수많은 영화제들에 공식 상영했으며, 국내에서도 2020 대한민국콘텐츠대상 애니메이션 부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면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올해 슬램댄스 영화제, SXSW 에서 연달아 수상하기도 했다. '오페라'는 올해 한국에서 최초로 대형 미디어아트전시회를 통해 대중들에게 널리 선보일 예정이다. 오동문과의 인터뷰는 유튜브 서울대학교 공식계정(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 서양화과 미술학도가 오스카 후보에 오르기까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악문화재단 공공미술프로젝트 추진

조슬기(04동양)



조슬기 동문이 관악문화재단이 추진하는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에 선정돼 그 결과물을 별빛내린천 미디어아트를 통해 오는 6월 선보일 예정이다. 관악문화재단이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관악구청이 추진한 관천로문화플랫폼(가칭)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예술가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공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A-FLAP' 작가팀은 대표인 조동문을 중심으로, 38명의 지역 예술인과 작

가들로 구성되었다. 조동문은 모교 동양화와 시각디자인 학사를 졸업하고 뉴욕 로체스터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모교 미술교육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모교 미술교육 연구원으로 관악창의예술영재교육원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A-FLAP'의 작품 '도림전심(道林傳心)'은 '이심전심'과 '도림천'을 합한 제목으로, '도림의 마음을 마음으로 전하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 주민이 직접 작품을 제작하고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이자 커뮤니티 기반 전시 프로젝트이다. 별빛내린천 LED 패널을 통해 구현되는 6개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젊고 유쾌한 콘텐츠부터, 주민들이 함께 향수할 수 있는 지역 소재 기반의 콘텐츠까지 다양하게 구성된다. 현재 온·오프라인을 통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림, 사진, 영상 등 관악구와 관련된 소재를 모집하고 있으며, 추후 작가들의 아이디어를 더하여 이미지 및 영상 콘텐츠로 제작될 예정이다. 관악문화재단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들에게는 관악구의 지나간 추억을 회상하고, 또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가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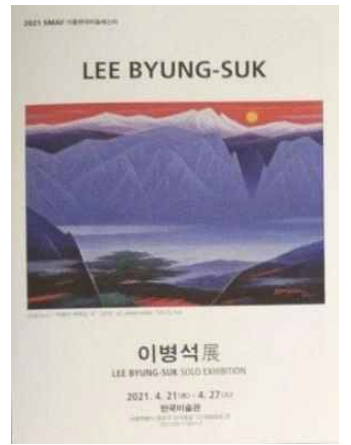
바람이 머무는 곳 이병석(58회화)



흔을 분출하는 그는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근간으로 작품세계를 풀어나간다. '바람이 머무는 풍경'의 테마 연작을 이어가며, 한국 화단에 독자적 영

서양화가 이병석(58회화) 동문이 지난 4월 21-27일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열린 제9회 서울현대미술페스타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이동문은 비물질적 대상인 바람에 천착해 인간의 근원을 탐구하는 예술가다. 강렬한 채색과 초현실적 형상의 화폭으로 예술

역을 구축해온 이동문은 "생명이 숨 쉬는 대자연의 저편 너머로 바람이 머물고 간다. 마음의 창을 심상적으로 형상화하는데 근원을 두고, 색채의 현란함과 중후한 감성 표현으로 바람이 담고 지나간 현실에서 또 하나의 세계를 회상시킨다"며 작품세계를 설명했다. 이동문은 한국미술협회 기획위원, 한국미술협회 이사,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한국과학경진대회 미술부문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대한민국미술학전 입선, 생제르망데프레국제전 평론상, 제21회 ASIA 국제현대미술전 아시아 국제상, 1985 국제아시아현대미술전 국제상 등을 수상했다



Women in Abstraction 최옥경(59회화)



한국 추상표현주의를 대표하는 작가 최옥경(1940-1985) 동문이 세상을 떠난지 36년의 세월이 흘러 전성기가 시작됐다. 최동문의 주요 작품 3점을 비롯해 세계 여성작가들의 추상주의 작품을 소개하는 기획전 'Women in Abstraction'이 지난 5월5일 프랑스 파리 퐁피두센터에서 개막했다. 전세계 여성 작가 106명의 작품 500여 점을 소개하는 대규모 전시로, 여기서 최동문의 작품은 힐마 아프 클린트, 일레인 드 쿠닝, 루이스 부르주아, 에바 헤세 등 세계 거장들의 작품과 함께 전시된다. 퐁피두 전시를 마친 뒤 오는 10월22일부터는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에서 내년 2월까지 전시가 이어진다. 이번에 선보이는 최동문의 추상회화 3점은 작가가 1960년대 미국 체류 초기에 그린 작품으로, 강렬한 색채의 사용과 대담한 필치를 보여준다. 1960년대 초중반 미국 화단에 지배적이었던 추상표현주의의 정신과 스타일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실험을 하며

한국 추상표현주의를 대표하는 작가 최옥경(1940-1985) 동문이 세상을 떠난지 36년의 세월이 흘러 전성기가 시작됐다. 최동문의 주요 작품 3점을 비롯해 세계 여성작가들의 추상주의 작품을 소개하는 기획전 'Women in Abstraction'이 지난 5월5일 프랑스 파리 퐁피두센터에서 개막했다. 전세계 여성 작가 106명의 작품 500여 점을 소개하는 대규모 전시로, 여기서 최동문의 작품은 힐마 아프 클린트, 일레인 드 쿠닝, 루이스 부르주아, 에바 헤세 등 세계 거장들의 작품과 함께 전시된다. 퐁피두 전시를 마친 뒤 오는 10월22일부터는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에서 내년 2월까지 전시가 이어진다. 이번에 선보이는 최동문의 추상회화 3점은 작가가 1960년대 미국 체류 초기에 그린 작품으로, 강렬한 색채의 사용과 대담한 필치를 보여준다. 1960년대 초중반 미국 화단에 지배적이었던 추상표현주의의 정신과 스타일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실험을 하며

자기 고유세계를 구축해 나가던 작가의 강렬한 열망이 고스란히 담겼다. 1960~70년대의 한국 미술계는 단색화와 한국 아방가르드운동이 활발하고, 미국의 추상표현주의보다는 유럽의 앵포르멜과 일본의 모노하 영향이 지배적이던 시기였다. 최동문은 당시 주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의 작품은 한국미술계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세계를 열었다. 한편 국내에서도 최동문의 작업세계와 시대적 가치에 대한 조명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열린 국제갤러리 전시에 이어 국립현대미술관은 오는 10월22일부터 내년 2월13일까지 과천관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연다. 최동문의 추상세계를 조명하는 것은 물론, 당대 기록과 영상 등 다양한 아카이브를 함께 소개하는 자리다. 최동문은 1963년 모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떠나 크랜브룩미술학교 서양화과, 브룩클린미술관 미술학교에서 수학했으며, 1968~1971년 미국 프랭클린피어스대학의 미술과 조교수로 활동했다. 최동문은 1978년 귀국해 영남대, 덕성여대 서양화과 교수 등을 역임했다. 신세계화랑(1971), 뉴멕시코 로스웰미술관(1977), 국립현대미술관(1987), 호암갤러리(1989), 국제갤러리(2005/2016/2020)에서 개인전을 연 바 있다.



촉각적 회화 김춘옥(64회화)



붙이고 그 위에 먹을 칠한 뒤 뜯어내며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수묵의 번짐으로 나타나는 미감을 살리면서도 한국화의 평면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였다. 콜라주와 반대로 화면을 뜯어내는 데콜라주

김춘옥 동문이 지난 5월10일까지 개인전을 가졌다. 2000년대 초반 작품부터 올해 완성한 신작까지 지난 20년 매진해온 한지작업 40여점을 선보였다. 50여년간 한국화의 길을 걸어온 김동문은 전통적인 수묵채색화로 출발해 1980년대 초반 여러 미술상을 받으며 화단의 인정을 받았다. 이후 한국화의 현대적 재창조와 세계화를 위한 실험 끝에 한지를 5~8겹

방식으로, 미술평론가 윤진섭은 이를 '촉각적 회화'라고 칭했다. 종이를 뜯고 찢어 형태를 만드는 작가의 행위는 어둠에서 시작해 빛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중간층에 색지를 쓰거나 채색으로 다른 색을 드러내기도 한다. 완성한 작품은 반추상에 가깝다. 대상을 세밀하게 묘사하지 않는 시적인 작업으로 작가는 자연과 인간, 세상 만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그는 "우리는 어떤 사물을 단순히 그 자체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에 의해 이해한다"라며 "그것이 서양과의 차이"라고 설명한다. 한국화 부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작가는 "대학에서 동양화과가 계속 없어지고 해외에 제대로 한국화를 보여주지 못하는 현실이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도 필요하지만, 작가들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독창적인 언어로 우리의 미감을 보여줘야 한다"라며 "전통과 정신성은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문은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이사장, 마을미술프로젝트 추진위원장, 한국화여성작가회 회장 등을 지냈고 2003년 옥관문화훈장을 받았다. 현재 한국화진흥회 이사장, 한국화여성작가회 고문, 한국미술협회 상임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지필묵채 풍경화 오용길(65회화)



을 집중적으로 담아냈다. 그동안 전국 산과 들을 돌아다니며 산수화를 그

실경 산수화가 오용길 동문이 지난 5월 5-17일 동덕아트갤러리에서 2년만에 개인전을 열었다. 실경 산수의 출현과 발전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작가로 알려져 있는 오동문은 이번 전시회에서 '신록의 안양예술공원', '산운-설악', '별을 든 소년-안양예술공원' 등 대형 실경산수화 30점을 선보였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그의 고향인 안양의 풍광을 집중적으로 담아냈다. 그동안 전국 산과 들을 돌아다니며 산수화를 그



제자들과 함께 해온 행복한 화가"라고 자부한다. 한편 오동문은 이화여대 동양화과 교수로 정년퇴임하고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려냈다면, 자신의 주변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오동문은 27세에 1973년 국전에서 문화공보부장관상으로 주목받은 후 월전미술상, 의재허백련예술상, 이당미술상, 동아미술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2019년에는 작품 '서울-인왕산'이 청와대 본관 로비에 걸려 다시 한 번 주목 받았다. 자신의 그림을 "전통적인 수묵 산수화가 아니라 지필묵채로 이룩된 풍경화"라 명명하는 그는 스스로를 "하고 싶은 그림 그리면서, 또 대학교수로 제자들과 함께 해온 행복한 화가"라고 자부한다. 한편 오동문은 이화여대 동양화과 교수로 정년퇴임하고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20주기 기념전 황창배(66회화)



황창배(1947~2001) 동문의 20주기를 맞아 서울 연희동 황창배미술관이 '황창배미술공간'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 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전시는 총 4부로 기획돼 올해 내내 계속된다. 황동문은 한국화 화단에서 여전히 파격과 일탈의 대명사로 기억된다. 그는 모교 회화과에서 공부하며 월전 장우성과 철농 이기우로부터 전통 화법과 전각, 글씨 등을 탄탄하게 전수받은 엘리트 화가였다. 1978년 국전에서 한국화가로 첫 대통령상을 수상할 만큼 수준급의 기량을 일찌감치 터득했지만, 고답적인 틀을 생래적으로 싫어했다. 서양화의 물감 재료를 섞고 서구의 추상주의, 표현주의 사조 등을 빨아들

인 파격 화풍으로 1980~90년대 화단에서 활동했다. 그는 안정된 미대 교수 자리도 박차고 나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귀기 어린 붓질을 휘두르다 홀연히 생을 등진 풍운아로 평가된다. 한편 황동문은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동양학과 교수, 동덕여자대학교 초빙교수,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으며, 국전 문화공보부 장관상, 대통령상, 선미술상, 미술세계대상작가 대상, 도쿄아트페어 토탈미술상 등을 받았다. 미술평론가·미술사연구자인 김복기(80회화) 동문과 박영택·김상철·송희경씨가 4부로 기획해 12월까지 이어가는 이번 장기 전시회의 1부는 지난 4월17일까지 진행됐고 현재 다음 전시를 이어가고 있다.



사물의 뒷모습 안규철(73조소)



안규철 동문의 개인전 '사물의 뒷모습'이 5월13일부터 7월4일까지 국제갤러리 부산점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부산에서의 첫 개인전이자 오랜 교직 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작가로서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다. 이번 개인전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관습적인 미술 재료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사용하는 사물과 언어를 소재로 세상의 모순을 드러냈던 오브제 작품을 한층 완결성 있는 모습으로 선보인다. 작업 초기 일상 사물의 규모에 머물던 작품의 규모는 지난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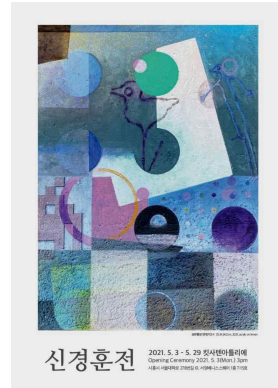
년 삼성미술관 로댕갤러리에서 열린 개인전 이후 점차 건축적 규모로 확대됐다. 1955년에 서울에서 태어난 안동문은 1977년 모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1980년부터 1987년까지 '계간미술' 기자로 활동하면서 1985년 '현실과 발언'에 참여했다. 1987년 프랑스 파리로 유학 후 1988년 독일로 이주, 슈투트가르트 국립미술학교에 입학해 1995년 동대학 학부 및 연구과정을 졸업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국립현대미술관·2015), '모든 것이면서 아무 것도 아닌 것'(하이트컬렉션·2014), '49개의 방'(삼성미술관 로댕갤러리·2004), '당신만을 위한 말'(국제갤러리·2017) 등이 있다.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열린 '달의 변주곡'(2014), 제9회 광주비엔날레 '라운드 테이블'(2012), 삼성미술관 리움 '한국미술·여백의 발견'(2007), 독일 프랑크푸르트 쿤스트페어라인에서 개최한 'Parallel Life'(2005)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가했다. 1997~2020년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로 재직했다.



디자인 아티스트 신경훈(74응미)



신경훈 동문이 5월 3-29일 시흥시 킷사텐아틀리에에서 세 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광고 디자인과 로고 디자인 업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던 신경훈 동문은 이제 작가가 됐다. "두 번 아니라 서너 닷 번이라도 바뀌는 것이 인생이죠." 신동문은 인생의 중간에서 만나는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2017년 모교 74학번 동기전 '갑인동인행전'에 작가로서 첫 참여한 후, 모교 전체 동문전 '빌라다르페스티벌'에서 첫 판매를 경험했다. 2019년 첫 번째 개인전을 가진 신동문은 세 번째 개인전을 선보인다. 밤에 올려다 본 하늘에서 눈에 들어온 별빛 하나로부터 보라행성 작업을 시작했다는 신동문. 그는 아크릴을 주로 사용하고 제도기를 이용해 불투명 기하학 컴퍼지션을 만들거나 투명하게 겹치는 그라데이션 분위기로 표현한다. 이번 세 번째 개인전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한 새로운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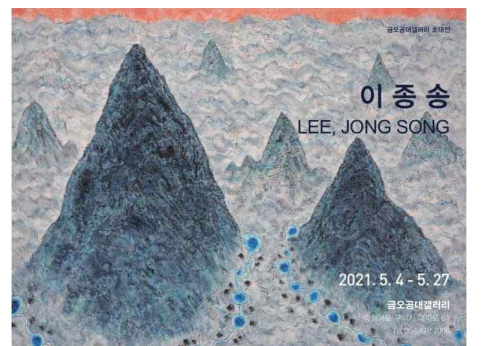
현방식을 추가했다. 디지털프린트 작업을 하듯이 일단 컴퓨터로 작품을 마음에 들 때까지 한 뒤, 다시 캔버스에 수작업으로 그리기 시작한다. 그는 "모니터와 물감색이 전혀 달라 컴퓨터 화면 속 작품을 캔버스에 그대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해 다시 새로운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다. 하지만 스케치와 머릿속 구상을 캔버스에 계속 그리는 것보다는 마치 기본 시나리오가 있는 작업을 하는 듯하다"고 말한다. 이 프로세스가 완성돼 익숙해지면 완성된 캔버스 그림을 다시 컴퓨터에 입력해 변형하거나 컴퓨터그래픽을 접목해서 새로운 작업으로 연결해 시도하는 중이다. 힘든 순간에 희망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실수도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정답이라며 새로운 길과 도전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신동문은 앞으로 더욱 완성도 있는 '보라행성 시리즈'를 작업하고, 지구상의 모든 픽토그램과 시공간이 얹혀지는 이미지와 스토리의 두 번째 프로젝트 '픽토맨 시리즈'에도 새롭게 도전해 볼 예정이다.

앙상블 이종송(83동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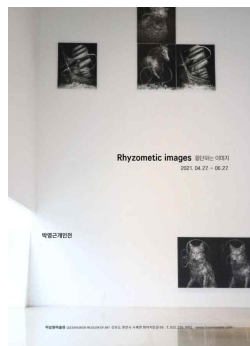
금오공과대학교가 금오공대갤러리 초대전으로 '이종송 작가 초대전'을 마련했다. 5월 4-27일 열리는 이번 초대전 전시회명은 '앙상블'. 18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이동문은 국내외 자연의 풍경을 작가만의 섬세한 표현법을 통해 화폭에 담아 왔는데 이번 전시에서도 그러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흙을 덧바른 캔버스 위에 천연 안료를 사용한 작가의 흙벽화 기법은 파도, 바람 등 자연의 소리들을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그 리듬과 운율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해 준다. 고분이나 사찰 벽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작가의 표현 기법에는 전통적 한국화의 명맥을 이으면서도 이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한 노력이 담겨 있다. 이동문은 "자연과 오랫동안 소통하며 자연이 주

는 전율과 경이로움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행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며, "어려운 시기에 이번 전시회를 찾는 관람객들도 잠시나마 자연의 풍경을 벗삼아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건국대 조형예술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이동문은 모교 및 동대학원 동양화과를 졸업했다. 일본, 미국, 프랑스 등 국내외에서 40여 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200여 회의 단체전에 참가했다. 초·중·고 미술 교과서에도 작품이 수록돼 있으며, 대한민국동양미술대전(제9회), 동양서화대전(제8회), 대한민국미술대전(제36회)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경기도미술관, 박수근미술관, 한국은행 등을 비롯해 대학, 관공서 등 다양한 곳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횡단하는 이미지 박영근(84서양)

박영근 동문이 4월27일-6월27일 개인전 '횡단하는 이미지'를 춘천시 이상원 미술관에서 갖는다. 박동문은 캔버스에 유화로 그림을 그린 뒤 전동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지웠다가 다시 그리거나, 그라인더 자체로 이미지를 만들기도 한다. 전시를 통해 새롭게 시도한 완성작에 이미지를 덧붙여 변형하는 작업으로 인해 작품은 종결된 상태에서 다른 서사와 메시지를 품기 위해 출발한다. 이번 전시는 대규모 회화 전시로 40호부터 200호 캔



버스 작품 80여점이 전시된다. 특히 이번 전시 작품들 중 일부는 2006년 이후 완성한 작품에 리터칭하여 제작되었다. 작품의 완성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 된 것이다. 변형과 재탄생에 대한 가능성에 무게를 둔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박동문은 모교와 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1999년 중앙미술대전 특선, 동아미술제 특선, 사포로 국제 판화 비엔날레 후원자상을 수상했다. 현재 성신여대 미술대학 서양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천상언어 서용(85동양)



서용 동문이 5월 3-30일 대구 윤선 갤러리에서 '천상언어(天上言語)'를 주제로 초대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는 국내외 벽화 권위자 서동문의 작품을 조명하는 특별기획전이다. 서동문은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중국 베이징 중앙미술대학 벽화와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중국 난주대학 역사학과 둔황학 박사과정을 1기로

졸업했다. 둔황학 박사 최초의 외국인인 그는 우연히 접한 둔황벽화에 매료돼 1997년부터 7년간 둔황 막고굴에 실제로 거주하며 벽화연구와 작업에 매진했다. 베이징에서 3차례 개인전을 열고 귀국 후 미국 홍콩, 유럽 등지를 오가며 전시를 이어갔다. 또 서울 상도선원 신중탱화 및 관음, 지장보살도 등 벽화 제작을 비롯해 북한 소재 강서대묘, 안악3호분, 덕흥리고분, 수산리고분 등 고구려 고분벽화 복원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동양의 전통적인 건식벽화 기법을 토대로 둔황벽화의 예술 세계를 담은 대작을 비롯해 자신만의 현대적인 시각으로 창작한 근작들이 포함돼 있다. 한편 서동문은 북경 중앙미술대학 벽화과 객좌교수와 동덕여자대 회화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비누조각 작가의 새로운 실험 신미경(86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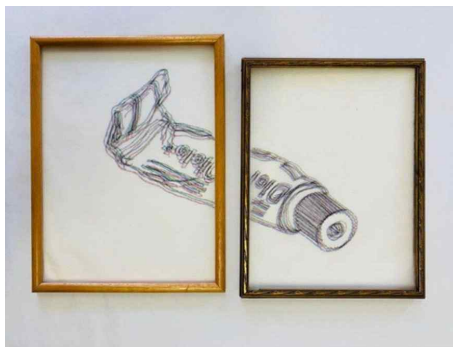
영국과 한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신미경 동문의 개인전 '앱스트랙트 매터스'(Abstract Matters)가 5월 29일까지 서울 마포구 씨알컬렉티브에서 열린다. 비누로 박물관 유물을 똑같이 모방하는 '번역' 프로젝트로 각광받은 신동문은 대리석이나 세라믹 등 원본 재료의 질감을 완벽히 재현하지만 물에 닿으면 녹아 없어지는 비누의 속성을 통해 유물의 권위와 가치를 재해석

해왔다. 이번 개인전에서 선보이는 신작 50여점은 전시장 바닥에 놓이는 대신 전부 벽에 걸렸다. 비누 대신 택한 재료는 새로 개발된 수성 아크릴 레진인 제스모나이트로, 돌, 철가루, 금박 등을 섞어 거푸집 안쪽을 채운 뒤 재료가 굳으면 떼어 내는 방식이다. 신동문은 "비누 조각은 이미 만들어진 대상을 앞에 두고 의도에 따라 작업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지만 이번 작업은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우연성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면서 "즉흥적이고 추상적인 회화의 방식으로 평면 조각이라는 새로운 조형예술을 실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동문은 모교와 런던슬레이드스쿨에서 조소를 공부했으며, 영국왕립예술학교에서 세라믹&유리과 석사를 취득했다.

solitude 성민화(89조소)

재독작가 성민화 동문의 개인전 'solitude'가 5월 6-30일 서울 종로구 갤러리룩스에서 열리고 있다. 성동문은 서울과 베를린을 오가며 개인적인 공간과 그 안에 존재하는 사물을 반복적으로 드로잉해 미세하게 변화하는 세계를 이미지로 드러내왔다. 독일에 거주하며 겪은 팬데믹과 봉쇄령, 외부와의 단절에 따른 고독이 이번 작업의 출발이 됐다. 공포와 타의에 의해 시작된 단절된 생활의 낯센을 이내 자신에게 익숙한 작업 과정에서의 '고독'의 의

미로 받아들인 성동문은 자신의 작업에 고독하게 몰두해, 팬데믹으로 정지된 일상의 시간 속에서도 자신의 세계를 확장시키는 결과를 냈다. 성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독일에서 브라운슈바이크 국립조형예술대, 베를린 국립예술대를 졸업했다. 'ancilla'(2019), 'still'(영은미술관,2018), 'Fade'(a-lounge, 2017) 등 15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평행한 두 세계 이창원(91조소)



이창원 동문의 개인전 '평행한 두 세계'가 5월7일-8월8일 성곡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동문의 설치작업은 일상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사물을 활용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는 "리플렉션이란 빛이 반사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뭔가에 대해 숙고하고 이 시대를 반영하는 작업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기여화광' 시리즈

는 인왕산, 관악산 등의 산등성이 실루엣 뒤로 은은한 빛이 벽면에 나올거리는 작품이다.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빛은 각종 전단을 텐테이블에 올려놓고 조명으로 비춰 만들었다. '성스러운 빛'은 작품 정면에서 보면 스테인드글라스 조명처럼 형형색색 빛이 나지만, 사실 페트병 등 플라스틱 용기를 불투명한 유리판 뒷면에 붙인 것이다. 성스럽고 예술적으로 보이는 세계와 싸구려 재료로 만든 그 이면의 세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작품으로 작가는 성과 속의 극명한 대립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그는 경이로워 보이는 예술도 흔한 일상에 근원을 두고 있음을 드러내고, 어떤 진실이 아집과 편견에 의한 환상일 수도 있음을 밝힌다.

Yet Yet Yet 이승인(09서양)

이승인 동문의 개인전 'Yet Yet Yet'이 지난 4월 15-30일 갤러리자작나무에서 개최됐다. 이동문의 회화에는 의도적으로 흐트러트린 형상과 그러한 혼돈의 상태를 각인시키기 위한 강박적일 정도로 섬세한 재현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형상의 독해 불가능함과 대조되는 재현의 선명함은 뒤엎힌 파편들과 함께 화면 위에 어떤 긴장감을 형성한다. 작품의 모호한 형상은 특유한 자아 정체성의 발현 혹은 특정한 의제의 전달 수단으로서의 작업 개념을



거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대신 작가는 강박적인 노동을 삶의 긴장을 해소하는 수행으로 받아들이며, 대상이나 서사 없이 자신의 수행자적 태도를 제시할 때 보다 자유로운 의미가 개화한다고 믿는다. 한편 이승인은 모교 서양화과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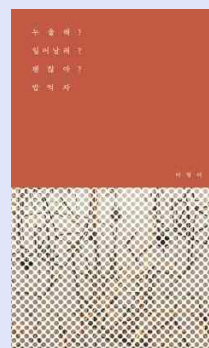
누울래? 일어날래? 괜찮아? 밥먹자

이영미(78응미) 저 / 정한책방 발행



이 책은 이영미 동문이 2016년 루게릭병 발병 초기부터 그가 글을 쓸 수 있었던 2018년까지 페이스 북과 메모장에 기록한 글과 사진 중에서 추려 엮은 것이다. 급속도로 힘을 잃어가는 육신을 오로지 가족의 돌봄에 기대면서 하루 종일 듣는 고마운 말들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떨리는 손을 책상에 의지하면 그나마 휴대폰으로 글쓰기가 가능했던 시절에 그가 올린 글과 사진은 여러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호흡기를 달고 병석

에 누웠으나, 건강을 잃으면서도 존엄을 지키며 담담히 써 내려 간 글은 읽는 이의 마음을 먹먹하게 한다. “루게릭 판정 받고 일 년 만에 별레가 되었다. 인간과 별레도 한 곳 차이다. 사람이라고 잘난 척하지 말았어야 했다” ‘왜 나일까’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의 순간을 지나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 이르는 여정이 먹먹한 울림을 준다. “나는 인위적 생명유지장치를 거부합니다. 생명을 경시해서가 아니고 인생에 아무 아쉬움도 여한도 없어 내게 주어진 자연적인 시간으로 충분히 만족한다”는 인간존엄선언 같은 글도 있다. 이동문은 샘이깊은물 편집디자이너, 김형윤편집회사 아트디렉터, 재단법인 예울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사물의 뒷모습

안규철(73조소) 저 / 현대문학 발행



예술가라는 장르를 뛰어넘어 사물과 형상, 나아가 자신의 삶의 태도와 사유를 소박하고 순수하게 표현한 안규철 동문의 에세이집이다. 그는 ‘내 이야기로 그린 그림’이란 제목으로 월간 ‘현대문학’에서 2010년부터

11년간 연재해오고 있다. 그 첫 번째 책으로 2013년 출간된 ‘아홉 마리 금붕어와 먼 곳의 물’의 후속작인 ‘사물의 뒷모습’은 2014년 1월호부터 연재한 글과 그림 67편을 엮은 것이다. ‘사물의 뒷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이야기 쪽으로 무게가 실려 있다. 특히 제목 속 ‘뒷모습’은 중년을 지나는 시점에서 이제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자신의 뒷모습과 사물 혹은 현상에서 보이는 것 이면의 뒷모습을 들여다본다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현대미술교육의 이론과 쟁점

김형숙(85서양) . 안인기(86공예) . 고흥규(94동양) . 남기현(석11미교) 외 저/ 교육과학사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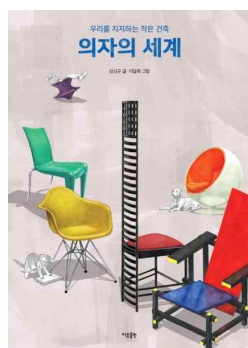


이 책은 두 개의 장으로 구분돼, 1장은 사회 변화에 따른 미술교육 이론의 전개, 2장은 현대미술교육의 쟁점을 중심으로 14개의 논문을 편성했다. 대학 강의교재로 활용시 매주 한 주제별로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강의

전 해당 교재를 과제학습으로 읽어 오고 강의시간에는 각 주제 뒤에 제시된 후속 활동과 질문거리를 중심으로 실제적인 적용 학습을 진행해 보는 방식도 권장사항이다. 제시된 후속 활동과 질문거리는 수업 여건에 맞게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본 선집에 포함된 내용을 기본으로 추가적인 기존 연구물들을 함께 탐색하고 활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김형숙 동문은 모교 졸업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미술이론 석사,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서 미술사학과 석사와 미술교육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모교 동양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의자의 세계

김상규(86산미) 저 / 이유출판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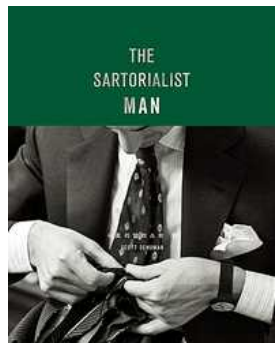


김동문(글)과 이일하(그림) 두 아티스트의 아코디언 북으로 대량생산이 시작된 시기에서 최근까지 의자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앞면의 우아한 일러스트레이션과 뒷면의 실속있는 정보가 어우러진 인테리어 북이다. 최초의 대량생산 제품임에도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토

넷, 이브 생 로랑이 가장 아꼈던 드래곤, 몬드리안의 그림이 의자가 된 레드블루, 철망에서 태어난 다이아몬드, 야구의 전설 조 디마지오의 이름을 딴 조, 사람의 다리를 플라스틱으로 의인화한 루이스, 아담과 이브가 남긴 뒷모습 Him&Her 등 의자에 얹힌 흥미로운 스토리가 수채화풍의 유니크한 그림으로 되살아난다. 김동문은 모교 산업디자인학과와 국민대 대학원 공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퍼시스가구연구소에서 의자를 디자인했다. 의자를 비롯한 사물에 애정을 갖고 큐레이팅과 아카이브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서울과학기술대 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사토리얼리스트 맨

안진이(석03서양) 옮김 / 월북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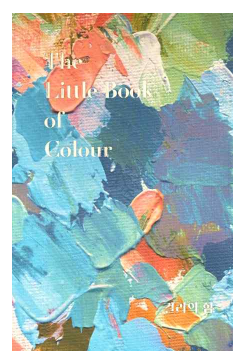


패션을 예술로 끌어올렸다는 스트리트 패션 사진의 선구자인 스콧 슈만이 전 세계 거리에서 만난 남성들의 사진과 철학적인 글, 스타일 노하우, 옷과 삶을 대하는 애티튜드가 실려 있다. 저자는 구시대 유품이 된 전형성을 피하고 오직 길거리에서 자신의 개성을 스타일로

표현한 ‘진짜 남성’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패션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한 기본 원칙부터 자신의 삶을 좀 더 존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스타일 철학까지 담은 책으로, 티셔츠 입는 법, 가방 챙기는 법, 옷 손질하는 법, 우아하게 나이 드는 법까지 망라한다. 패션에 대한 조예가 깊은 사람에게는 예술적 영감을, 패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루의 자신감을, 좀 더 옷과 삶을 개성과 의미로 채우고 싶은 사람에게는 빛나는 아이디어를 전해주는 책이다. 안진이 동문은 모교 서양화과 대학원에서 미술이론을 전공하고 현재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컬러의 힘

안진이(석03서양) 옮김 / 월북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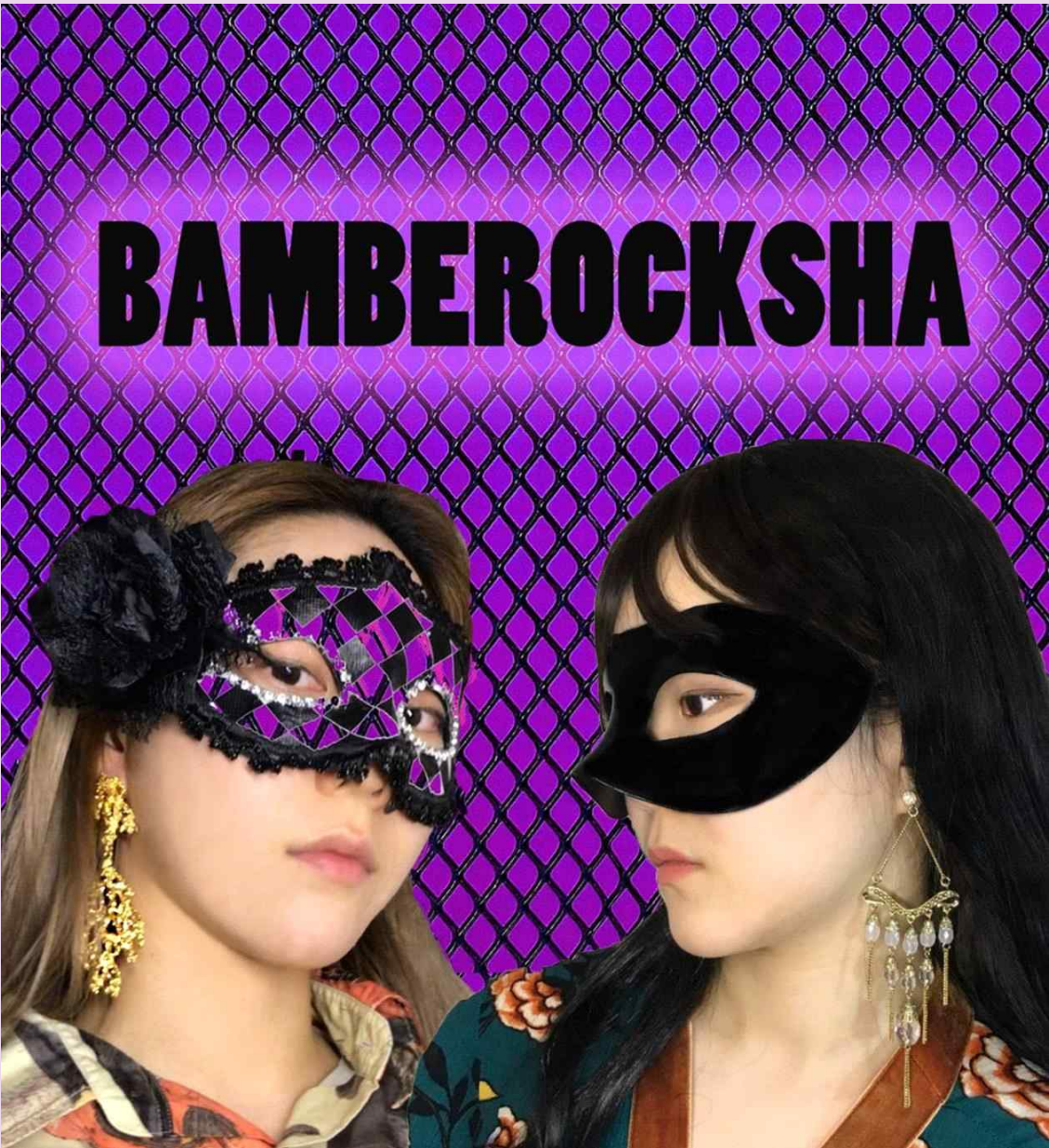
영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디자인 분야)로 컬러 전문가와 아트 디렉터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섬세하고 명료한 컬러 팔레트가 페이지마다 펼쳐진다. 색과 감정, 색과 심리, 색과 성격, 나아가 색과 삶의 역학관계

를 20년 넘게 연구해온 캐런 할러에 따르면 색은 상상 이상의 에너지를 지녔다. 색 하나만 잘 골라도 존재감이 커지고 컬러 조합만 잘해도 팍팍한 마음에 여유가 찾아온다. 캐런 할러는 응용색채심리학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로, 색의 에너지를 우리 삶에 제대로 활용하는 법을 들려준다. 나를 빛나게 하는 인생 색, 내 안의 자존감과 집중력을 높여줄 컬러 톤, 편안한 휴식을 줄 컬러 인테리어 지식, 우리 브랜드에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컬러 조합을 알려준다.

전시

성명(가나다순)	전시명(개인전)	전시기간(4.01~30)	전시장소
김덕용(81동양)	빛과 결 - 귀소	04.14 ~ 05.04	나마갤러리
김선희(68응미)	제6회 김선희개인전	03.15 ~ 05.14	오브제갤러리
김춘옥(64회화)	김춘옥초대전	04.22 ~ 05.10	갤러리U.H.M.
김혜련(석88서양)	예술과 암호 - 고인돌의 그림들	04.29 ~ 06.11	슈페리어갤러리
맹성규(08디자인)	SUNDAY ELEVEN	04.07 ~ 04.30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박영근(84서양)	Rhyzometric images 횡단하는 이미지	04.27 ~ 06.27	이상원미술관
백승현(96동양)	곡선의 용서	04.28 ~ 05.09	서울일삼
변재형(96공예)	鍊金展覽會(연금전람회)	04.21 ~ 05.04	갤러리단디
서 용(85동양)	2021天言語-From The Voice of Heaven to The Bliss of Oasis	04.06 ~ 04.29	갤러리오스퀘어
신미경(86조소)	Abstract Matters	04.13 ~ 05.29	씨알컬렉티브
윤미류(석16서양)	not walking at a consistent pace	04.27 ~ 05.05	not walking at a consistent pace
이병석(58회화)	이병석展	04.21 ~ 04.27	한국미술관
이승인(09서양)	Yet Yet Yet	04.15 ~ 04.30	갤러리자작나무
임동승(99서양)	허점들 _ the empty dots	04.09 ~ 05.01	아트스페이스3
장우주(10서양)	TRACING	04.27 ~ 05.09	Keep in Touch Seoul
조해리(04동양)	행복한가(幸福限歌)	04.28 ~ 05.04	갤러리도스
최아영(67응미)	최아영초대전	04.07 ~ 05.06	원아트
한영옥(58회화)	한영옥초대전	04.07 ~ 05.31	바우지움조각미술관 아트스페이스
황창배(66회화)	의도를 넘어선 회화_숨은 그림 찾기	03.16 ~ 04.17	황창배미술공간

동문 여러분의 전시회 소식을 메일(snuarta@naver.com)이나 문자(010-9469-8065)로 보내주시면 본회 소식지 E-NEWS와 인스타그램, 네이버밴드 등 SNS에 게재해 드립니다



뱀머락샤(Bamberocksha) 김여경(14조소)

뱀머락샤는 김여경 동문과 조소를 전공한 그의 언니 김비송이 함께 만든 온라인 주얼리 상점이다. 뱀머락샤는 2019년 경남 창원시 집에 있는 작업실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손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두 자매가 전공 외에도 더 다양한 장르의 것들을 만들고 싶어서 시작한 뱀머락샤에서는 두 사람의 취향이 담긴 제품들과 직접 제작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뱀머락샤는 두 사람이 직접 만들어낸 뱀머와 락샤라는 캐릭터가 합쳐진 이름이며 각각 김비송과 김여경의 또 다른 이름이다. 뱀머, 락샤는 그들의 새로운 페르소나를 의미하며 장신구나 도구로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현재 레진을 주재료로 쓰고 있지만, 앞으로는 세라믹, 나무, 실버, 골드 등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하여 판매할 예정이며 향후 주얼리 뿐만 아니라 바디 액세서리, 패션의류 등으로 확장해 해외판매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뱀머락샤를 찾은 유명한 가수는 씨엘 ('화'뮤직비디오, '5star rap session'뮤직비디오), 선미 ('꼬리'뮤직비디오), 보아 ('Better'뮤직비디오), 마마무 (연말시상식 무대), 악동뮤지션 수현 ('Alien'뮤직비디오), KARD ('Gunshot' 음악방송 무대) 등이 있다.

홈페이지 : bamberocksha.com
연락처 : bamberocksha@gmail.com
인스타그램 : instagram@bamberocksha